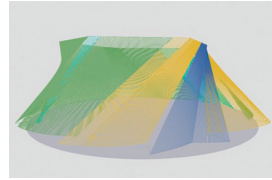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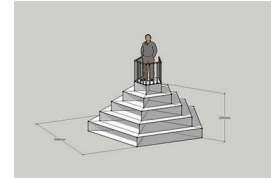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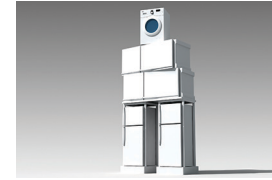
카입 + OAA
Kayip + OAA
<바람만이 아는 대답>
Blowin' in the Wind

6



김시원
Kim Siwon
<무제(, x)>
Untitled(, x)

5



이원우
Wonwoo Lee
<샘>
Fountain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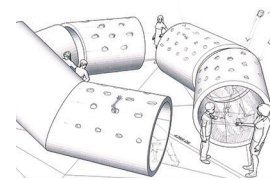
최기창
Kichang Choi
<굴러온 돌>
A Stone Rolled

3



정소영
Soyoung Chung
<지붕>
Roof

2



AnLstudio
<환원>
Re:Circ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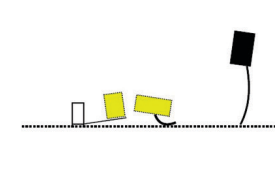


박기진
Kijin Park
<통로>
Path

전시장소 2 :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현장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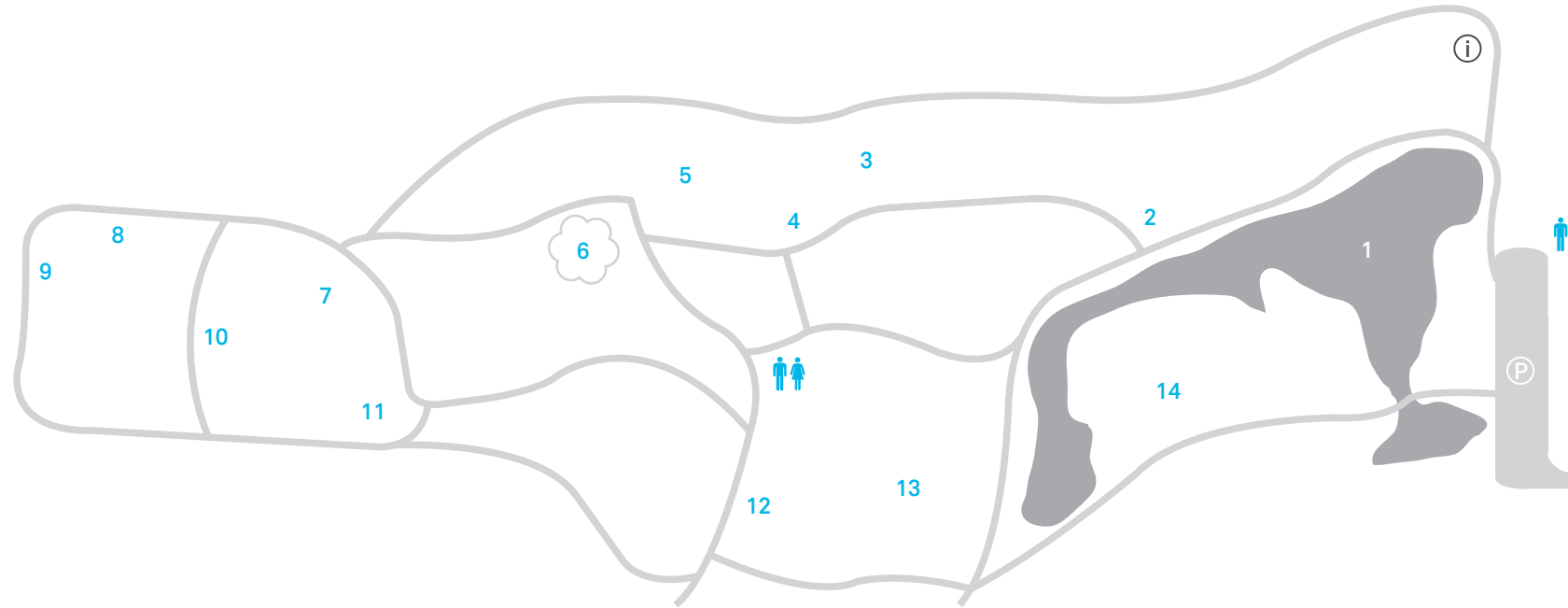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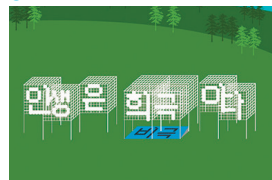
이세욱
Sei Rhee
<밝은 낮>
A Room of Limpid Lights

전시장소 1 :
용산가족공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85



8



송지연
Jiyeon Song
<인생은 희극이다>
Life is a Comedy

9



SoA
<담>
Embracing Wall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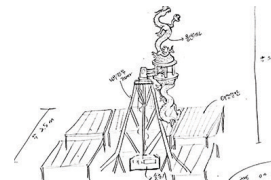
김인배
Inbai Kim
<삼각형>
Triangle

11



남혜연 + 남명기
Hye Yeon Nam + Myung Ki Nam
<A Journey of Footstep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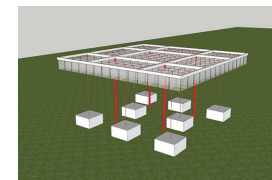
백정기
Jungki Beak
<용을 달은 산>
The Mountain that
Resembles a Dragon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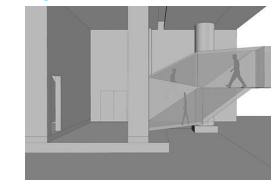
박기원
Kiwon Park
<만개(滿開)>
Full Bloom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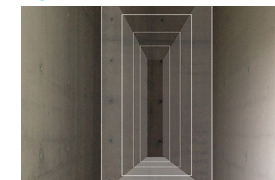
OBBA
<Movingscape>

15



김이홍
Leehong Kim
<진짜와 가짜 사이>
Between Real and Fake

16



비주얼로직
visualozik
<Link 1 / Link 2 / Float /
Window / Perspective>

INFORMATION

전시기간 2016년 8월 13일 ~ 2016년 9월 10일
전시장소 용산가족공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85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현장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9-5

관람시간 월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입장마감 오후 6시 30분)

휴 관 일 전시기간 중 무휴

입 장 료 무료

단체관람 미술관 문의

* 주차공간(유료)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Periods August 13 ~ September 10, 2016

Location Yongsan Family Park
18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AMOREPACIFIC Headquarters Site
159-5, Hangangno 2-ga, Yongsan-gu,
Seoul

Hours Monday through Sunday
10:00 a.m. ~ 7:00 p.m.
(last admission 6:30 p.m)

Admission Free

Tel 031-280-5587

Web museum.amorepacific.com

e-mail museum@amorepacific.com

Address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20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주 최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후 원 서울특별시

PROGRAM

Art trek 정규 도슨트 투어

시간 : 오전 10:30 / 오후 4:30, 5:30 (매일 3회)

Art trek Plus 단체 도슨트 투어

전시기간 내 상시 운영

10인 이상, 관람 3일 전 사전 예약 필수

* apmap talk 작가 강연회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을 추후 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vents

1.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전시장에서 찍은 인증샷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apmap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기간 : 2016년 8월 13일 ~ 9월 10일

2. 블로그 포스팅

전시장 풍경을 블로그에 포스팅

기간 : 2016년 8월 13일 ~ 9월 10일

참여방법

미술관 이메일(museum@amorepacific.com)로

이름 / 등록일 / 연락처 / 인스타그램 아이디 또는

블로그 URL 전송

추첨을 통해 전시 기념품 증정

당첨발표

2016년 9월 20일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NEW MUSEUM IN YONGSAN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 amorepacific museum of art)은 현재 서울 신용산에 새로운 미술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고미술품 전시는 물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전시, 한국과 외국의 현대미술품 전시를 펼쳐 보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다채로운 미술관 교육을 실현할 중소형 시설과 대형 강당이 설치될 예정이다. 미술관의 설계를 맡은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1953-)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결, 명확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며, 첨단기술과 재료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건축세계를 선보이고자 한다. 예술작품으로 완성된 건축물인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한국미술과 전세계의 작품이 공존하는 새로운 전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Amorepacific museum of art is constructing a new museum due to open in Sinyongsan, Seoul. The museum will have exhibition halls for antiquities, as well as special exhibitions combining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s, and exhibition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s. There will also be an arts educational facility as well as a large auditorium. Internationally-renowned architect David Chipperfield (1953-) is spearheading the design of apma. He is widely recognized for his practice that covers the traditions and history of its locale, design that is succinct yet is in harmony with nature, and his use of varied approach that applies high-technology and materials. The museum will be a landmark connecting art and architecture, providing an innovative space for the exhibition of Korean and international art.

VENUES

용산가족공원은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중 일부를 1992년 서울특별시청에서 인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미군기지 내 골프장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잔디와 숲, 연못을 유지하고 산책로와 시설물을 구비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으며, 1993년 용산구청이 관리하던 시절 기증받은 예술작품 10여 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연중 상시 개방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용산 공원화사업을 통하여 서울 한가운데 거대한 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한편, 용산 신사옥 현장은 1956년부터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운영되던 부지이며, 여기에 1976년 구분사가 완공되었다. 2013년에 약 36년간 본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허물며 시작된 신사옥 건설은 2018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다.

In 1992 the City of Seoul transformed a part of the U. S. military base in Yongsan,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Korean War, into the Yongsan Family Park. The present-day condition of the Park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City's determination to maintain the lawns, groves and ponds of the U. S. military base's golf course and to build trails and other facilities. Throughout the Park are still placed about ten artworks that were gifted in 1993 when it was under the management of the Yongsan District Office. It is opened 365 days a year and offers a variety of public programs. The on-going Yongsan Park Project plans to turn it into a huge park at the center of Seoul. The thirty six year old building of AMOREPACIFIC's headquarters, which was built in 1976 at the site of its first headquarters, was demolished in 2013 for its new building whose construction is to be finished in early 2018.

MAKE LINK

apmap의 네 번째이자 part I을 마무리하는 *make link* 전시는 용산가족공원과 아모레퍼시픽 용산 신사옥 현장에서 펼쳐진다. 두 장소는 향후 용산 공원화사업을 통해 하나의 공원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용산이라는 지역의 과거-현재-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두 개의 장소를 개념적으로 연결하고, 도시-자연-사람 등 다양한 요소를 예술작품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소통시키고자 한다. 17팀의 참여 작가들은 전시장소를 수시로 답사하고, 자료를 찾거나 자문을 구하면서 장소특정적 작품을 구상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용산가족공원(14점)과 신축현장(3점) 곳곳에 설치되었다. 관람객은 다양한 감각에 호소하는 작품을 체험하면서 다층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주제로 기능한다.

Make Link, the fourth and final show of APMAP Part I, takes place at two different venues: the Yongsan Family Park and the AMOREPACIFIC Headquarters Site in Yongsan, which are to form a single park in the near future in accordance with the Yongsan Park Project plan. This show's objective lies in the conceptual bridging of the two places focusing on the past-present-future of Yongsan District and in the active communication of various elements such as cities-nature-people through works of art. The participating artists have visited the venues for a number of times for related information so as to explore their ideas and create site-specific works, which have been installed throughout the venues: 14 works at the Yongsan Family Park; 3 at the new building site. Being enabled to interact with the works that speak to their senses, visitors function as subjects who formulate multilayered connections.

APMAP PART 1 HISTORY



apmap 2013 osan *reverscape*

일상공간이 어떻게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적 전시

장소 : 경기도 오산시의 화장품 통합생산물류기지인 '아모레퍼시픽 뷰티캠퍼스'

참여작가 : 강영민, 김승영, 김시원, 김용관, 김주현, 도윤희, 박기원, 오정선, 정승, 정승운, 정혜련, 최기창, AnLstudio, flying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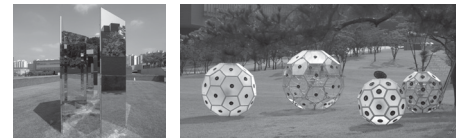


apmap 2014 jeju *between waves*

제주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로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전시

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차 생산지 '서광다원'

참여작가 : 김병호, 김인배, 김찬중, 김태균, 노재운, 백정기, 부지현, 서동주, 오승열, 이근세, 이원우, 이은선, 장민승+정재일, 정소영, SoA



apmap 2015 yongin *researcher's way*

아름다움을 비롯한 소중한 가치와 이를 위한 기술과 욕망에 대한 사색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전시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참여작가 : 남혜연, 박기진, 박혜수, 방&리, 송지연, 양수인, 정재훈, 정승일, 조성현, 조재영, 진달래&박우혁, 차혜림, 카입+이종인, OBBA, Mink&Everyware, zerolab

APMAP

apmap(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다양한 현장을 순회하며 장소의 특성에 맞추어 매년 새롭게 기획된다. 전시의 주무대가 되는 야외 공간에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지향하는 미(美)의 가치, 작가, 관람객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광장을 만들어 나간다.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지시하는 apmap은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공미술의 활성화와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일상과 열린 공간으로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보다 많은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의 장(場)을 구축하여 현대미술의 미래를 'mapping'하고자 한다. apmap은 올해 용산 전시를 끝으로 part I을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4년간 제주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APMAP is a public art project organized by the amorepacific museum of art (apma). The project takes place in a unique location each year and each exhibition is specifically tailored to the specificity of the site. An outdoors space becomes the core exhibition space, creating a platform for th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of beauty and values of apma to be experienced by artists and audiences alike. APMAP aims to set a ground for new directions in contemporary art by seeking out and supporting young artists and thereby vitalizing public art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 The project expands on the realm of art to the everyday and to the open space. This project aims to map the future of contemporary art by constructing a new platform of art of opportunities for more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APMAP concludes its Part I with its fourth show in Yongsan. It is planned to be continued in Jeju for the next four years.

make link

apmap part 1
2016 yongsan make link
2016. 08. 13 - 09. 10
Yongsan Family Park
AMOREPACIFIC Headquarters Site